

##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2.4.26.(화) 오후 3시~4시2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권혁남위원장, 문해주, 정의식, 이현숙,

유환익, 정경모, 김희중, 천경숙위원 등 8인(김세한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1. 다음 회의 일정

- 5월 일정 : 5월 24일(화) 오후3시

#### ■ 주요 내용

##### ▲ 권혁남 위원장

반갑습니다. 종각역에서 내려서 쪽 걸어오는데 이 길을 언제 왔던가 이미자의 '아씨'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아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 임원진, 부사장님을 화상으로 만나다가 이렇게 뵈니까 마치 연예인들을 현장에서 만난 듯한 그럼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 4월 정례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추승호 보도본부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제가 보도본부장 맡은 지가 6개월 남짓 됐는데 시청자위원님을 오프라인으로 처음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에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의견도 저희가 잘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권혁남 위원장

그러면 전례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해주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 ▲ 문해주 위원

-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과총에서 수많은 회의가 있고 또 수많은 포럼이 있고 여러 가지 토론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비대면, 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달에는 수많은 국내외 소식과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이며, 특히 국내외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기자들이 심층보도를 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담형식으로 심층 분석보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서 시청자들에게 쉽게 알리려고 노력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로써 지난달(3월)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안보의식'이라는 내용으로 연합뉴스tv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덧붙여 '종합 분석보도를 좀 더 빨리 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포함) 개발 및 발사

일지와 우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기획보도 또는 TV토론 등)해서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3.16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실패 보도가 있었습니다. 3.16 이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다방면으로 보도하고 '뉴스프라임'에서 전문가 대담을 통해 추가발사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3.16 발사 시에는 발사와 실패에 대한 내용을 심층 분석(3.16)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뉴스프라임'과 '뉴스포커스'에서 동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3.24일 발사에 대해 뉴스속보를 통해 보도하였고 발사 내용, 정부 규탄, 국제사회의 규탄과 규제 등 소식을 다방면으로 전하고, 연이어서 (3.24) '뉴스초점/뉴스워치/뉴스프라임/뉴스리뷰'에서, (3.25) 다시 '뉴스초점/이슈현장/뉴스포커스/이슈현장/여의도1번지/뉴스프라임'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Q&A 형식으로 대담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초점/한반도브리핑'(3.26), 미사일 발사에 대한 '영상구성(3.25)과 그래픽뉴스'를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슈현장(4.4), 한반도브리핑(4.9/16), 뉴스포커스(4.11), 출근길인터뷰(4.12), 뉴스프라임(4.13), 뉴스포커스(4.15), 일요와이드(4.17) 등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층적으로 다룬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 지난 회의에서 언급한 '과학의 달' 관련 기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어 기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4.20)까지 보도된 4월 '과학의 달'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출근길 인터뷰'에서 관련 행사를 소개하는 정도로 매우 빈약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걸음걸이 분석기술 고도화, 기술유출 관련, 스마트팜 기술, 서비스로봇, 탄소중립 등 과학기술 관련 내용이 상당수 보도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과학기술 관련 뉴스는 속성상 어렵고 실체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사화해서 보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학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자를 채용해서 전담토록 한다면 보다 의미 있고 좋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지난달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도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정치부와 뉴스총괄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담을 구성하고 좀 다각적으로 보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학 보도를 더 다양하고 많이 해달라는 주문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도 많고 해서 실생활과 연계시켜 알기쉽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정의식 위원

- 3/28 희귀 난치병 치료비 1억원이란 보도에서, 암이나, 희귀난치병, 산모 등에서는 진료비 특례제도가 있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희귀 난치병에 대한 조사 등이 또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요양병원 시스템 붕괴에 대한 간헐적인 보도를 보며, 코로나 회복 후, 얼마나 감소(폐업)했는지 조사 및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4 연합뉴스 TV 스페셜, 오미크론+스텔스 오미크론 변종 :XE (3월 중순: 영국,타이완에서 시작) 델타+오미크론의 변종: XD (유럽에서 발견) 에 대한 보도 및 코로나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전망, 향후 다가올 변종들에 대한 보도를 각계 전문가들과 같이 보도하여 매우 좋았습니다.

- 4/5일 뉴스 일기 예보에 한반도 지도에 화살표로 기류를 표시한 것이 좋았는데, 혹시 화살표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얇으면, 기류 속도에 비례해서 기류 화살표의 두께도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 4/11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TV 와 비평> 평소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 날 전장연과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에 대한 보도가 외국 예를 들면서, 자세하 있었습디다. 아마도 이 문제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동안 잘 실행되지 않았던 게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 OECD 보다 훨씬 적은 정부 복지예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 외 다른 이유는 또 없었는지.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다음에 출현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준비, 포스트-오미크론 시대에 대한 준비: 코로나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한 준비

- 4/17 카푸어 2030 들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보도가 일부이긴 하지만, 현 2030 세대들의 마인드를 어느 정도 알수 있는 보도인 것 같아, 좋아 보였음. (전 세대의 경우, 하우스 푸어란 용어와 비교하여 설명함)

#### ▲ 추승호 보도본부장

관련 취재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 기류 화살표 두께 조절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상팀의 그래픽 담당자와 가능한 건지 상의해보겠습니다.

#### ▲ 이현숙 위원

[연합뉴스TV 스페셜] 223회 : 나이, 낮춰야 하나? 심판대 오른 촉법소년, 제목만 보았을 때는 촉법소년 연령을 쟁점으로 다루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용에는 가해자가 소년일 때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없는 현행 소년 사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소년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접근 방식, 보호관찰 제도 등을 다루는 것도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명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해야할 청소년 수가 많은 점 등, 시행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소년사범 관련 예산에 비해 피해자 지원 예산이 적다고 비교하였는데 피해자 관련 예산이 적다는 문제를 부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소년사범에게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예산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올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소년사범의 경우 재범방지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범방지는 소년 사범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범죄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였는 장면이 있는데, 청소년의 얼굴을 모자이크하였지만 보호자의 얼굴은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그대로 노출되어 방송 후 문제가 되진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향후에는 가족의 얼굴도 모자이크하여 주변 사람들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연령 아동 청소년의 범죄가 늘고 있고, 흉포화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

해 진단하는 것도 스페셜에서 다루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주간 시사 제작물인데 요즘 부쩍 질이 좋아져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출연자 보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소년 얼굴 보호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보호자 얼굴을 보호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출연자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연령 아동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문제 이런 것도 진단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유환익 위원

- 지난 3월31일 고용브리핑 365 코너에서는“중고차 시장 지각변동”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 확정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서 기자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보도하였음, 동 보도에서는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및 최종 확정된 내용과 과정,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해외 자동차 회사들의 국내중고차 시장 사례 등 다양한 내용들을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하여 매우 유익했음, 다만, “중소기업적합업종”과 “생계형적합업종”에 대한 개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도로 이해하고 설명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소 부적절했음, 보도에서는 중고차가 이미 2013년에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고 금년에 다시 재지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013년 지정된 것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고 금년에 지정된 것은 “생계형적합업종”임,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자율적으로 지정운영 하는 것이고 “생계형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 입법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임, 중고차는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되다가 6년 시한 만료되고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신청된 후 생계형에 적합하기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것임, 두 개의 용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취지나 심의 절차, 위반시 처벌, 구속력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 사용할 필요가 있음요가 있음

-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보도 아쉬움> 지난 4월15일 거리두기 해제 발표와 및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보도하면서 25일부터는 현재 1급감염병인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설명하였음. 2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인하였을 때 확진이 되어도 7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보도는 있었으나 2급 감염병으로 인하되었을 때 바뀌는 내용이 격리 여부만 있는 것인지, 다른 방역지침의 변화는 없는지, 특히,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급 감염병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인지 등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했으면 비전문가들인 시청자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 추승호 보도본부장

중소기업적합업종과 생계형적합업종을 구분하지 못했다면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야 하는 보도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급 감염병으로 강등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상세히 잘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가장 큰 것은 7일간 자가 격리가 없어지는 것이구요. 영업시간 제한 같은 개별 방역 조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아서 당일에 리포트로 잘 소화를 했고요. 완전한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상황을 보고 결정을 다시 하게 될 텐데 그 시점에 가서 저희가 시청자분들 헛갈리는 부분 없도록 자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 ▲ 정경모 위원

- 이달도 취재와 보도를 위해 수고하신 보도국과 취재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달에 있었던 많은 보도 중에 특히 좋았던 점을 짚어보며 평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배우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 수상 보도 관련, ▷ “장애인 역할은 장애인이다”...오스카 품고 주인공 우뚝 (2022.04.02.) ▷ “장애인도 연기합니다”...국내 영화계 현실은? (2022.04.02.) 지난 3월 25일에 열린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영화 ‘코다’에서 열연한 청각장애 배우인 트로이 코치가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장애인을 실제 장애인 배우가 연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최근에서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로이 코치가 출연한 영화 ‘코다’는 제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남우조연상, 각색상을 석권했는데요, ‘코다’(감독 셴 헤이더)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세상과 연결하는 코다 루비가 어느 여름날, 우연히 노래와 사랑에 빠지면서 꿈을 향해 달리는 감동 가득한 뮤직 드라마입니다. 영화의 원제이기도 한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는데요. 청인 코다는 어렸을 때부터 수어와 음성 언어, 두 가지를 구사하며 농인 커뮤니티의 가족과 청인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코다’는 주요 배역 대부분을 청각 장애 배우들이 연기했습니다. 영화 ‘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작품의 주역을 맡아 연기하는 경우가 주류 영화계에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장애인 배우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소수자 삶에 관심을 갖는 21세기적 흐름에 발맞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자연스러운 내면연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영화적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영화평론가의 분석도 그 의미를 더해 주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곧 이어서 국제 영화계의 흐름과는 아직도 동떨어진 우리 영화계의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해 온 장애인 배우들이 있지만 여전히 설 자리는 좁은데요, 그 이유는 장애인 배우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영화와 드라마, 공연업계에는 장애 배우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 이유는 주류 감독과 작가들이 장애를 소재로 삼는데 큰 관심이 없고 장애인 배우를 받아주는 제작사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역할도 역시 비장애 배우에게 돌아가는 게 관행입니다. 마침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욱 필요하고요, 특히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흔히 아카데미상 수상관련 보도는 수상자나 수상작품 위주로 단편적으로 보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영화제 수상관련 보도이후에 곧 이어서 우리 영화계의 현실을 대비하여 보도한 부분이 참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즘에 이런 보도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보도자세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보도를 계속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이수지 작가, 아동문학의 노벨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 보도, ▷ 작가 이수지,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 수상 (2022.03.22.) - 기자 리포트, ▷ [뉴스메이커] 이수지 (2022.03.22.) - 뉴스메이커 코너, ▷ 이수지 작가,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 수상 (2022.03.22.) - 수상작가 인터뷰, 지난 3월 21일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에서 낭보가 날아왔는데요, 국내 아동문학 작가인 이수지 씨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티드부문을 수상했다는 내용입니다. 안데르센상은 세계적인 동화작가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만들어진 상으로, 2년마다 아동문학 발전에 공헌한 글과 그림 작가를 한 명씩 선정합니다. 아동 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만큼

역대 수상자목록에는 모리스 샌닥, 앤서니 브라운, 아스트리드 린드그랜 등 세계 어린이책의 역사를 만들어 온 위대한 작가들의 이름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번 수상이 한국 작가로는 최초이고요, 아시아 작가 중에서도 38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상은 작가가 지금까지 창작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상을 한다는 건 곧 모든 작품에 대한 작품성을 인정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수지 작가는 이미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작가로 이 상 외에도 많은 상을 수상했거나 최종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수지 작가의 목표는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책'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길 바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이수지 작가의 안데르센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번에 연합뉴스TV는 이수지 작가의 안데르센상 수상을 보도 하면서 문화담당 기자의 리포트, [뉴스메이커] 코너, 수상작가 직접인터뷰 등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이수지 작가의 안데르센상 수상의 의미, 작가의 작품세계, 세계 아동문학계의 흐름 등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재미와 감동을 준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와 기획, 협업으로 뉴스의 재미와 깊이, 감동과 의미를 더해주는 보도에 거듭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말씀 해주신 대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안데르센 상 수상처럼 문화계의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단편적인 리포트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심도 있는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김희중 위원

-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4.7일 저녁과 8일 새벽, 연합뉴스TV에서 단독보도된 '생활고에.....초등생 두 아들 목 졸라 살해한 엄마' 라는 기사와 관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이 무거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단독으로써의 가치가 있으려면 다른 언론사가 취재하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일 관련기사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인터넷 기사로 다뤘고, 연합뉴스TV에서는 다른 언론사보다 다소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날 기사는 단독보도라기 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선 속보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물론 속보성도 단독보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보도라 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을 심층 취재해 진실을 밝히거나 사회에 큰 반향을 미치는 보도에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7일 저녁 '단독보도' 자막을 띄우고 속보성으로 앵커가 전했음에도 다음날 새벽 취재기자가 현장상황과 이웃들의 반응까지 취재해 다시 한 번 리포팅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친모의 자녀 살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건의 실체보다 살해된 자녀가 SNS 프로필에서 생전 웃는 얼굴과 이웃의 반응까지 취재해 보도한 것은 오히려 다소 자극적이고 시청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단독보도는 기자의 취재열정과 노력이 언론사의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사입니다. 특히 범죄와 관련한 보도는 사건의 실체보다 자극적 요소가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하고 단독보도를 표하는 것도 엄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 4.16일 방영된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치솟는 배달비...

음식점, 손님 불만 해법은?과 관련된 보도는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불만인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심층적으로 잘 다뤘습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배달앱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선 17~8%에 달하는 앱 이용 수수료와 4500원에서 8000원까지 내야하는 배달대행료로 남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소비자들은 배달수수료 때문에 음식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태를 자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돈을 더 지불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뿐 만 아니라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려는 배달기사들의 안전문제 그리고 플라스틱류 폐기물 증가 같은 문제까지 배달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조를 취재하고, 말미에 '배달앱 시장에 참여한 자영업자, 배달기사, 소비자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플랫폼 배달앱은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몫만 쥐어짜는데 골몰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마무리합니다. 이 뉴스가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위해 새정부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여부를 점검하고 나아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뉴스를 많이 기획하거나 발굴해 전달함으로써 연합뉴스TV가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단독 문제는 시청자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다루어진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독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사회적 가치도 있어야 되고 또 기자의 노력도 같이 덧붙여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단독을 보면 기자의 노력 쪽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보도라는 것은 공급자, 그러니까 기자보다는 수용자, 즉 시청자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단독을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보도가 자칫 자극적으로 흐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데도 신경쓰겠습니다.

#### ▲ 김세한 위원(위원장 대독)

- [핫클릭] 코너 참신한 구성과 편안한 진행 돋보여, [핫클릭] 코너는 보통의 뉴스보도처럼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가장 핫한 이슈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장점이 눈에 띄는 코너 같습니다. 특히 20일 방송된 핫클릭 코너 <"이웃이 돼 반갑습니다"...문대통령 부부 이사떡 돌려 外>에서는 ▲"이웃이 돼 반갑습니다"...문대통령 부부 이사떡 돌려 ▲다리 낀 지체장애 승객 위해 지하철 민 시민 30명 ▲총알 막은 삼성 갤럭시폰...우크라이나 군인 살려 등 3개의 뉴스가 담겨 있었는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적절한 영상과 함께 국내외 핫한 이슈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전해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뉴스가 처음 보도된 지 한 4시간 뒤에 확인을 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이나 휴대전화 앱 첫 페이지에서는 해당 기사 제목이 확인돼 기사를 볼 수 있었던 반면,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상에서 키워드 검색을 할 때 기사가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핫클릭으로도, 기사 제목으로도 모두 검색이 안 됐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검색이 되는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일 주요 기사가 홈페이지에서 코너명이나 기사 제목으로 검색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검수완박' 입법 관련 초대 패널 아쉬워,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등 사회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즉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대부분 신문의 1면과 방송 뉴스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으니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거나, 진단하는 패널들의 면면을 보면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역시 [뉴스포커스]나 [이슈현장], [뉴스초점], [일요와이드], [정치+] 등 다양한 코너에서 패널을 초대해 이 문제를 진단했는데,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수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패널은 변호사들이었고, 정치평론가나 이 이슈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 등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등 국회 표결과 관련 있는 정당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인 만큼, 주요 정당의 법사위원이나 원내 대표 등 비중 있는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검찰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직 검사장들도 언론 인터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는데, 직접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검찰 간부를 출연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공중파 등 다른 방송사에는 현직 검사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입장을 밝히는 걸 봤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클릭 검색해도 해당 기사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홈페이지 검색 엔진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조치를 했고요 지금은 핫클릭 검색을 하시면 기사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 검수 강박 관련해서 패널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티비에 국회의원들도 자주 출연을 하는데요. 요즘 사실 검수 완박이 제일 핫 이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출연하면 검수완박에 대한 질의는 빠지지 않았습니니다. 4월 21일 뉴스 1번지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출연시켜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었고요. 그날 저녁 뉴스프라임 시간에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출연시켜서 검찰 쪽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 ▲ 천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인사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는 맨날 마지막이라 간단하게 다들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녹색 어머니 중앙회 회장으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율, 사고 같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못 볼 때는 제가 뉴스를 항상 검색을 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색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도 작년 기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행안위하고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그때 그 기사가 좀 되게 잘 돼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다시 사용을 좀 해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회피해 키워드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알고리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찾아 찾아 못 찾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된 기사가 이제 여대생 생명 앓아간 음주 뺑소니범 11년 형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행인이 치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11년 후 선고를 받았다. 4월 10자 오후 12시, 여대생 생명 앓아간 음주 뺑소니범 징역 11년형 확정,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39살 A씨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행인 2명을 치



어 이 사고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여대생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피해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제가 한 번쯤 보자라는 의미에서 알렸습니다. 다행히 4월에는 어린이 관련 사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도 아이들 행동도 가벼워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항상 5월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기타 어린이 사고가 많은 달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5월을 어린이 사고 예방 집중의 달"로 방송을 기획하면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 어르신 또 고령자 사고율은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방송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특히 하나만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이 횡단보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지금 보는데 거의 80%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횡단보도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기가 노란색 흰색 이렇게 해서 여기로 눈에 띄게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위에 불과 1~2m 앞에 저기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건너서 그거에 대한 좀 기사도 한번 기사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어르신들, 과속 방지턱을 횡단보도에 착각할 수 있다는 부분 저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을 어린이 사고 집중 예방의 달로 삼아 캠페인성 보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 권혁남 위원장

- 지방선거와 관련된 보도량이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모 전문편성채널에서 방송교육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 교수가 진행자로 출연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에 의하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출연제한 기간은 3. 3. ~ 6. 1까지이다. \*\*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①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도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마다 후보자로 나가는 분들을 패널에서 제외하기 위해 잘 가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이번에 지방선거 나가게 되었다 하면서 스

스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하시는 패널 중에서 지방선거 나가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알아서 그만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남 위원장

5월 시청자위원회는 보니까 예정대로 5월 24일입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